

# 山林哲學과 山林經營의 전략

馬 相 圭 / 林業機械訓練院

## 1. 山林은 왜 存在하는가

山林은 金과 錦이 자라고 있는 土地를 뜻 한다. 나무도 자라고 동식물도 자라며 맑은 물과 산소를 生産하고 있는 곳이다.

왜 우리는 山林의 存在價值를 찾아야 하는가. 國民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먼저 木材를 생각해 보자. 옛날에는 땔감으로 이용되 왔었으나 文化가 발달됨에 따라 건축과 가구재로 이용 되었다. 그 수요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國內資源은 이제 2-30年生이고 대부분 필요한 것은 外國에서 수입하여 이용 되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를 느끼지 않고 살아 왔다. 그러나 금후 20年 이내에 高級材는 더 이상 수입이 어렵게 될 것이다. 資源이 고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國土의 2/3는 山林地帶이고 아직은 유령림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 高級材의 수요는 더욱 증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工業原料의 수요도 격증될 전망이다. 왜 우리는 山林地帶를 經濟地帶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經濟的 관점에서 國土의 2/3에서 정상적으로 山林資源은 生產한다면 그 價值는 얼마나 될 것인가. 새로운 의미의 經濟的 價

值를 부여하고創造시켜야 할 때이다.

山林은 經濟的 價值가 잠재해 있을뿐 아니라 國民의 삶을 保護하고 있는 곳이다. 生態的으로 맑은 물과 산소 공급을 차단시킨다면 육체적 삶의 質이 悪化될 것이며, 國民의 재산인 農土, 道路, 河川들이 매몰되고 畏괴된다면 物質的 삶의 質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風致와 自然의 질서가 畏괴된다면 國民의 精神的 삶의 質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山林은 經濟와 生態的 측면에서 그 價值가 높으므로 그 價值를創造하고 이를 價值가 調和로우면서 영구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經營을 하여야 된다.

## 2. 山林의 存在價值는 변하고 있는가

山林은 國民을 위해 存在하여 왔으며 그 價值는 文化의 발전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옛날의 山林機能과 오늘날의 機能은 社會나 文化가 변하였으므로 당연히 변하여야 한다.

우리는 社會와 文化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山林의 대처기능도 이에 따라 주었는가. 木材의 文化도 高級材와 高級紙로 변화되고 있는데 木材生產을 이에 맞추고 있는가.

農村에 모두 모여 살때에는 주민의 휴식처는 뒷동산이었고 앞내울이면 그만이었다. 農村이 봉괴되고 都市化, 工業化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燃料林을 造成하는 잘못은 없었는가. 왜 우리는 아직도 都市休養林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2000年代에는 國民들의 生活文化가 서구화되고 동시에 自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질 것이다. 맑은 물, 맑은 공기, 아름다운 國土, 풍요로운 삶의 環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山林은 이와 같이 社會文化의 변화를 예측하여 이에 맞는 山林의 存在價值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山林의 存在價值는 다하고 있는가

山林의 여러 機能을 社會가 要求하는 수준으로 만들고 이를 機能이 保續化 될 수 있도록 山林構造가 되 있다면 우리는 이를 바람직한 山林狀態라 할 수 있다. 現實的으로 그 存在價值는 얼마 정도일까.

#### -木材와 副產物生產

##### ○量的生產

自然이 주고 있는 土地生產性을 잘 실행하고 있다는 독일의 年間生產量은  $4\text{m}^3/\text{ha}$ , 스위스  $3.5\text{m}^3/\text{ha}$ 인데 비해 우리는  $0.2\sim 0.3\text{m}^3/\text{ha}$ 에 불과하다.

##### ○質的生產

우리나무는 가늘고 굽어서 쓸모 없는 나무로 山林이 구성되어 있다고들 한다. 이는 모르는 말이다. 어린나무일때부터 굽고 복든나무는 속아내고 우량형질木이 곧고 굵게 자라도록 技術投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木材의 利用文化가 더욱 高級化될 추세이므로 온대지방에서는 무늬가 아

름답고 색감이 좋은 우량형질목을 생산하고 工業原料는 열대지방에서 수입하는 대전략도 필요한 시기이다.

#### -國民에 일터 제공

山林의 一次生產(생신 育林 保護)과 二次生產(伐木, 集材)作業에 있어 100ha당 1人の 國民을 職業人으로 고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 약 6만 5천명이나 된다.

실제 우리의 山林은 國民을 위하여 얼마 정도 職場을 제공하고 있는가.

#### -소득으로서의 價值

自然의 힘과 國民의 일에 의해 生產되는 木材와 副產物은 國家의 소득이며 그 이익은 勞動者와 山主에게 分配된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勞動生產性이 낮아 山主에게는 별로 소득이 높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 勞動者の 生產力은 1人  $1\text{m}^3$  以下에 불과하나 機械化와 林道가 발달된 先進林業團에서는 1人  $7\text{m}^3$  以上 生產을 하고 있다. 製品의 價值(木材의 質)도 높이고 生產費도 낮추는 技術을 투입하여 山主所得도 높이고 分配의 効果도 높혀나가야 될 것이다.

#### -財產으로서의 價值

우리 國民은 전통적으로 社會 보다는 家族中心의 文化를 형성해 왔다. 山林은 가족의 재산으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크게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는 社會的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금문제, 보험문제, 재산행사권문제 등 生產外의 문问题是 물론이려니와 위탁보호 할 수 있는 山林經營上の 技法과 所得의 向上技法 등을 개발, 발전 시켜서 作的財產으로서의 가치는 물론 精神的 財產으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制度와 산주계몽이 필

요로 하고 있다.

#### - 수렵장으로서의 가치

야생동물은 적정한 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적정밀도를 넘으면 조절을 하는 맹수와 맹금류가 없기 때문에 生態界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를 사냥에 의해 조절을 한다.

사냥은 山林所得일뿐 아니라 합리적인 野生動物의 보호책이 된다. 사냥을 통한 소득으로 야생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적극적인 制度와 經營枝法을 발전시켜야 한다.

#### - 國民의 生活環境의 보호지로서의 價值

##### ○ 水資源涵養과 水質保護林의 價值

치산녹화로 수원함양기능은 양호해 졌으나 수질오염등으로 수원함양과 수질보호에 대한 욕구는 증대되고 있다. 水源涵養과 水質保護林으로 價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대상면적도擴大하여야하고 經營枝法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 土砂防備의 價值

山地로부터 表面侵蝕問題는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고들 생각할지 모르나 山林을 잘못 다스리면 侵蝕問題는 항상 새로운 問題로 등장 할 수 있다. 더욱이 봉괴위험지를 잘못 관리하거나 무리하게 運材路등을 시설하여 侵蝕源이 되도록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土砂防備林의 面積도 擴大되어야 할것이며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山林管理와 개신및 集材技術등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 ○ 氣候保護林의 價值

都市의 温度調節, 防風, 空氣 오염지대의 정화등 산림의 기후보호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을 氣候保護林으로 지정하고 그 價值를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枝法도 발전되어야 한다.

##### ○ 公道와 風致保護의 價值

公兵地를 통과하는 公道를 保護하기 위한 山林과 風致價值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그 價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管理 하여야 된다.

##### ○ 자연보호와 문화유적지 보호

희귀동식물의 자생지, 학술연구림, 문화유적지의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관계에서 주도적으로 보호하여 국민들의 영원한 재산으로 삼아야 된다.

##### - 國民休養을 위한 서비스林

國民들에게 숲속에서의 삶의 기회를 늘려주고 이를 통해 기쁨과 건강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도시권 주변의 山林과 풍치가 좋은 山林地帶는 휴양림으로 지정 관리 하여야 된다.

오염되지 않은 山村地帶를 山林休養村으로 지정 관리하고 休養施設物도 설치하여 국민들의 삶의 質을 높혀 나가야 된다.

以上의 사항등을 보건데 山林의 經濟的, 保護的, 休養의 價值가 미약한 편이다. 그 잠재적 가치는 대단히 크므로 적극적으로 그 존재가치를 증대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山林文化와 創造되어야 한다.

## 4. 山林經營環境의 造成

山林을 질서있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보속경영구조”를 만들어 “기술적경영” “계획적 경영” “전문가에 의한 경영”을 할 수 있는 制度와 組織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山林의 전문적 경영규모와 조직편성  
산림의 경영은 결국 人間에 의해 이루어 진다. 전문적인 經營者가 경영할 수 있는 경영규모를 설정하여 능력별로 能率을 최

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制度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山林의 所有와 國家이든 個人이든 山林의 存在價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企業的 經營 概念이 도입되어야 한다. 山林經營 規模는 어떻게 설정하는것이 타당할까.

#### ○大經營單位 - 企業的 經營區

立地條件上 單一 또는 2~3樹種을 生產하고, 經營의 편의상 同一流域으로 구성되며 行政管理上 行政區域이 같은 山林地帶를 企業의 經營單位로 구획을 한다. 生產管理面積 5,000~30,000ha 정도가 적합하다. 面積의 크기는 경영형태와 업무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 ○中經營單位 - 責任經營區

流域과 行政區域을 고려하여 전문경영자 1人이 作業員과 함께 責任과 自律에 의해 경영할 수 있는 面積으로 1~3,000ha 규모이다. 造林樹種과 木材販賣板以外의 經營活動에 대해 경영책임을 갖는다.

#### ○小經營單位

立地條件上 同一한 經營目標와 方法을 투입할 수 있는 최소 경영 단위이며 이 區域은 항구적으로 同一經營技法이 투입된다. 面積은 30~50ha 규모 내외로 한다.

#### - 經營組織의 편성

山林機能의 特性상 山林經營은 國가주도 또는 國가지도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소유가 사유림이든 국유림이든 전문 경영자는 국가에서 고용하여야 된다. 국유림 경영구는 국유림 영림서, 사유림의 경우는 사유림 영림서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상위 임업직으로 보하면 될것이다.

영림서의 상급기관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교육, 연구, 장기계획 및 토지와 예산 관리등을 담당하면 될것이다.

영림서의 하부구조는 계장, 과장과 같은 행정적 보조기관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바로 경영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는 조직이 바람직하다.

#### - 經濟的 經營과 環境保護的 經營

어떤 產業이든 經濟와 環境을 조화롭게 하는것이 경영의 기본생명이다. 우리도 경제개념을 도입하여 經濟的 山林經營에 속 달될 시기이다.

우리는 保護와 緑化라는 非經濟分野와 상부기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自律權 없는 山林管理에 습관화 되어 있다. 새로운 技術을 도입하여 林業의 經濟性 提高에 소홀히 하여 왔고 기술개발 보다는 감사 대비에 급급하여 왔다.

그리고 山林分野에는 經濟的 經營을 할 수 있는 전문 경영자가 양성되 있지 않은 상태이다. 山林을 「經濟의 눈」과 「環境生態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영자가 필요로 하고 있다.

근래 환경립의 욕구가 증대되고 이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과거의 사례에 의하면 환경립으로 지정된곳에 대해 경제적 사업권을 전면 제한시키는것은 지나친 단순논리이고 행정편의 위주의 제도이다.

환경립에 대해서도 주기능이 환경보호이고 부기능이 경제립이란 뜻이므로 다목적 경영을 할 수 있는 制度와 복합된 기능을 갖춘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인력개발에 가 일종 노력이 있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 山林의 領급구조를 보속적생산구조로 발전시켜나갈 방법을 강구함과 동시에 보육적이며, 기술적으로 경영해 나갈 수 있는 기술 풍토를 조성해 주는 일이다. 技術이 없는 사람들에게 山林을 맡기는것은 의술이 없는 의사에게

병자를 맡기는것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 5. 山林計劃制度의 발전

目標가 없으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르므로 혼돈에 빠지게 된다. 질서있게 山林을 경영하자면 목표와 목적이 분명하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計劃이 필요하고 計劃의 내용은合理性이 있어야 한다.

사회가 발달되고 생활文化가 발전되면 山林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게 된다. 서로 다른 산업분야에서 山林에 대한 이용욕구가 다양하게 나타고 경합이 발생되게 된다. 山林도 사회시스템의 일환이므로 사회발달의 시스템에 맞게 산림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 -山林空間計劃

山林地帶를 하나의 空間으로 보아서 山林機能의 여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計劃을 뜻한다. 國土利用計劃을 上位 計劃으로 하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람직한 山林空間配置에 대한 지식을 동원하여 작성한다.

이 計劃은 道單位도 될 수 있고 道를 區分하여 地域別로 大分하여 작성할 수 있다.

山林의 經濟的 측면에서 大經營區單位별로 經營의 集約度와 木材工場地帶, 그리고 環境保護측면에서 各種 環境林의 위치 및 休養林 등 地域開發의 巨視 관점에서의 山林의 空間的 利用計劃을 제시하여 地域住民의 經濟와 文化生活의 질적생활을 향상시키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어야 한다.

### -山林經濟計劃

郡單位로 作成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상적인 山林圖(樹種配置圖)를 두고 그 목

표를 향하여 山林의 平面的, 全級的 構造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다.

林道의 幹線網, 발전시켜 나갈 木材工場의 位置, 中經營區(責任經營區)의 위치, 小經營區의 位置 등도 計劃을 하고 환경림과 휴양림의 위치도 세분해 두어야 한다.

### -營林計劃

山林計劃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단계로 금후 10년내에 해야할 計劃을 作成한다.

### -一年間事業計劃

營林計劃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매년 실행할 사업과 그 시기에 대한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目標를 세우고 計劃的인 經營을 하여야 질서있는 山林經營을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중장기 계획은 전문기관에서 작성해 주어야 科學的인 計劃이라 할 수 있다. 현업관서에서는 계획을 위한 행정식 계획을 세울 수 밖에 없으므로 행정 편의주의식 중장기계획을 세울 바에는 실행하지 않은것이 보다 경제적이다. 과학적인 계획을 세울려면 전문기관에서 전문가에 의해 계획이 되도록 하는 정책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 현행 영림계획은 사실 작업계획에 불과하다는것은 알아야 할것이다.

## 6. 国家주도경영을 위한 전략

우리나라 私有林 經營은 不在한 상태이다. 山主는 있으나 經營은 없다. 地方山林行政機關이 山主 행세를 하고 組合이 作業員 역할을 하고 있다. 한해 아래 문제가 아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왜 사유림 경영은 不在할까.

○소유규모로 보아 산주경영이 不可能하다.

○ 영세 사유山地는 묘지와 토지로서의 재산기능이 주체이다.

○ 소득기능이 낮고 재산으로서의 山林에 대해 관심이 높지 않은 상태다.

○ 山主 스스로 自律的 경영에 대해 경험도 없고 기회도 없었다.

○ 不在山主가 대부분이고 마을에 거주하는 山主는 노령화 되어있다.

○ 山林經營을 위탁할 전문 경영기관이 없다.

國家側面에서 私有林을 현재와 같이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 原料供給機能이 약화되고 국민고용 기능이 상실된다.

○ 國民所得機能이 약화되고 資源으로서의 山林의 質이 저질화되므로 山林의 經濟的 價值가 하락된다.

○ 山林의 環境保護에 대한 욕구를 충족 시킬려면 施業制限에 따른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 山林의 國民休養機能을 발휘시키기가 곤란하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山主에 의한 자발적 경영이니 山主의 의식개혁이니 또는 山主指導니 하는것은 허구적인 솔어에 불과하다. 社會經濟側面에서 山主에 의한 山林經營은 솔직하게 포기하고 대처방안을 찾는것이 현명한 일이다.

山林으로부터 國民所得과 삶의 質을 높힌다는 당위성이 높으므로 私有林 經營의創造는 힘있는 기관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주도, 또는 국가의 강력한 선도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私有林經營을 합리화 시키는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경영자는 地方의 산림직 공무원과 지도원을 훈련시켜 충당시키면 組織上의 人力問題는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다. 山林經營政策의 대전환을 기대한다.

## 7. 結言

山林은 國民들을 위해 存在한다. 國民들의 經濟的 生活環境의 삶의 質을 높이기 위하여 山林의 存在價值를 높혀야 된다. 이와 같은 山林哲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질서있는 山林經營이 되어야 한다. 생산구조를 보속화시키고 山林의 가치를 유지증대 시키기 위해서는 技術的 經營이 되어야 하며 이를위해 計劃的으로 專門家에 의해 경영을 하여야 한다.

특히 사유림의 경영을 혁신시키지 않는 한 사유림 경영은 불가능 하므로 新韓國林業의 創造精神으로 국가주도하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야 될 것이다.

현행 행정 위주의 조직을 경제적 경영위주로 재편하고 多目的 山林經營技術과 方法을 도입하여 山林의 여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山林의 存在價值를 인정하게 된다. 國民은 山林을 필요로 하고 있다.